

체에 찢러 넣어 발기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심어 세우기는 음경 보형물을 해면체 내에 이식하여 대체발기를 만들어 주는 수술방법을 말한다.

수 있다.

### 남성들의 임전태세 수단

현재 요힘빈(Yohimbine), 트라조돈(Trazodone) 또는 트렌탈(Trental), 날트렉손(Naltrexone), 홍삼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효과가 인정되는 약물은 아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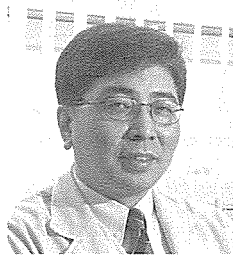
약 한알이나 주사 한방이면 언제 어디서나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가? 향후 등장할 실데나필(Sildenafil)이라는 약물을 한 번 기대해 보자. 페니스 내부의 발기메신저, cGMP라는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실데나필이 이 효소를 억제시켜 페니스의 웅자(雄姿)를 만들어 준다. 현재 장기간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 FDA의 인준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데나필이 결코 만능은 아니다. 심인성 원인의 발기부전증에서처럼 해면체 내에 정상 발기 조직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데나필에 이어 관심을 끌고 있는 내복약물, 바소맥스(vasomax)도 등장체비를 하고 있다. 또 에포몰핀이라는 약물을 설하(혀밑)로 투여하면 구강점막에서 흡수되어 페니스를 기동시킨다.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e) 패치제나 대머리 치료제로 알려진 미녹시딜(Minoxidil)을 페니스 피부에 발라 발기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페니스 발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NO)를 공여하며 미녹시딜은 발기조직을 이완시켜 페니스를 팽창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

## 男性的의 氣 살리기

자신감 세우기, 만져 세우기, 먹어 세우기, 빨아 세우기, 찢러 세우기, 심어 세우기, 넣어 세우기, 발라 세우기, 붙여 세우기, 고쳐 세우기 등 남성의 기(氣) 살리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얼른 듣기엔 체조나 궁도 경기방법 같은 이름들이나 이것은 남성들의 임전태세를 갖추는 수단들로 그 요지경 세계를 들여다 본다.

**현** 재 의학적 검증을 받아 페니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을 세운 후 만지고 빨아먹거나 넣고 찢르는 방법이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마지막으로 심어 넣어야 한다.” 아직 개발 도상에 있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묘책이 소개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발기 유발 수단만으로도 죽는 순간까지 확실한 발기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져 세우기는 발기부전의 가장 훌륭한 치료제로 알려진 여성의 손이 페니스에 기(氣)를 붙여 넣어주는 것이며, 빨아 세우기는 진공상태의 실린더내에 페니스를 가두어 발기 압력에 필수적인 혈류를 발기조직내로 빨아들여 세우는 방법이다. 먹어 세우기는 실데나필(sildenafil), 바소맥스(vasomax), 요힘빈 및 기타 평활근 이완제나 혈류 개선제를 복용하여 페니스에 활력을 주는 것이며 찢러 세우기는 여러 종류의 발기 유발제를 페니스 몸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자신감 세우기, 만져 세우기(Women's hand), 먹어 세우기(위약, 평활근 이완제, 혈류 개선제, 실데나필), 빨아 세우기(진공발기), 찢러 세우기(자가주사), 심어 세우기(음경 보형물 수술), 넣어 세우기(뮤즈, 이렉타) 그리고 발라 세우기(피지이원, 파파베린), 붙여 세우기(니트로글리세린 패치, 미녹시딜 패치), 고쳐 세우기(혈류재건술) 등으로 거의 모든 남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확실한 임전태세를 갖추

약물의 부작용과 발기조직 내부로 충분한 약물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숙제로 남아있다. 펜톨아민을 설하(舌下; 혀밑)로 투여하기도 하고 피지이원이나 파파베린을 연고제나 크림으로 만들어 페니스 피부에 발라 발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섹스에 충분한 발기 강도에도 미달되는 수준이다. 모두 '절러야' 하는 거부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미한 발기부전 환자의 피하에 아포몰핀(Apomorphine)을 피하주사하여 페니스 발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 새로운 약물개발에 심혈

넣어 세우기라는 발기시스템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현재 풀죽은 페니스 소유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수단은 역시 절러 세우기다. 당분간 이 자가주사법은 발기 부전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있다. 특히 수술을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겐 더할 나위없는 환상적 발기수단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우선 섹스를 시도할 때마다 매번 페니스 몸통에 주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 방법의 채용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문제점들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동 주사기가 보급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절러 세우기의 번거로움을 상쇄할 만한 획기적 수단은 될 수 없다. 그리고 극히 드문 일이지만 하지만 장기간 주사침을 반복해서 절러대면 페니스의 백막과 해면체에 흉터조직이 생겨 딱딱한 멍울이 만져

지기도 하고 페니스가 바나나처럼 한쪽으로 구부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짜르기'보다 더욱 간편한 약물 전달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지금도 남성 의학자들은 보다 개선된 약물 전달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넣어 세우기의 뮤즈(MUSE)도 같은 맥락에서 개발된 것이다. Muse (Medicated Urethral System for Erection)라는 제품은 요도를 통해 발기유발제인 피지이원(PGE-1)을 주입, 요도 점막을 통해 흡수되면 발기조직 내로 주사한 피지이원과 비슷한 발기효과를 나타낸다. 요도 점막을 통해 흡수된 피지이원이 발기조직을 이완시키고 발기조직 내로 혈류를 증가시켜 질내 삽입에 충분한 발기력을 나타낸다. 페니스 통증이 뮤즈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다. 그러나 절러 세우기에서 가끔 생길 수 있는 지속성 음경 발기증의 빈도가 거의 없다는 장점을 지닌다.

### 시혼과 영감으로 활기 선사

이 제품은 비침습적인 약물전달시스템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회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피지이원과 더불어 당분간 남녀화합의 매개체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국내에서도 이미 모 제약회사에서 이렉터(Erector)라는 상품명으로 출하되어 있고 올 상반기쯤이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음악, 학예를 주관하는 그리이스 여신 뮤즈가 20세기 말, 명상과 묵상으로 시혼을 찾아 시적 영감으로 남성 육체에 활기를 선사하는 페니스의 여신으로 둔갑한 것이다.

페니스가 특수 혈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심장 혈관질환이 기질성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발기란 페니스라는 혈관 내부로 혈액이 모여들어 만든 혈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질성 발기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성이다. 페니스 발기 기둥내부로 혈액 유입이 충분치 않거나 새어 나가 페니스 혈압 형성이 안되는 상태가 발기부전증이다. 따라서 혈관성 원인의 발기부전증의 경우, 수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페니스 내부로 혈류 상태를 개선시켜 주면 발기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이 페니스 혈류 재건술이다. 동맥 혈류재건술과 음경정맥 차단술이 있지만 이러한 혈관 수술들은 혈관성 위험인자, 즉 심각한 당뇨, 고지질혈증, 과도한 흡연 그리고 발기조직 전반에 질병이 있을 때는 혈관 재건술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남성의 골반부 외상에 의한 동맥성 발기부전이나 선천성 혹은 외상성 정맥혈 누출의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좋은 수술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확실한 발기 유발 수단은 역시 심어 세우기다. 음경 보형물을 발기 기둥내에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발기와 이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약 13종의 다양한 음경 보형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역시 3피스 수압식 보형물이 가장 바람직하다. 은폐도가 우수하며 생리적 발기 상태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약 천5백명을 웃도는 남자가 심어 세우기로 부족함없는 섹스를 영위하고 있다. ⑤